

## 소공동체 소식

이 페이지는 각 구역이나 신심단체가 새로운 정보나 전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직접 꾸미는 '주보 사랑방'입니다

## 노스에디슨 구역

### 노스에디슨 구역 소식 (유아세례)

지난 5월 김성일(베드로), 정영선(플로라)의 자녀 김리오(레오) 어린이의 유아세례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속에서 건강하게 잘 자랄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 노스에디슨 구역에는 누가 있나요?

- 1 김대호 (미카엘), 김경미 (마카엘라)
- 2 서영원, 서경희 (피아)
- 3 서화철 (예로니모), 김은라 (젬마)
- 4 오용덕 (헨리코), 오경숙 (세실리아)
- 5 유근성 (시몬), 유희자 (베로니카), 유태열 (요한)
- 6 이종권 (베드로), 이은숙 (가브리엘라), 이원석 (바오로), 이준우 (스테파노)
- 7 정영옥 (요세피나)
- 8 김성일 (베드로), 정영선 (플로라), 김리오(레오)
- 9 최승웅 (미카엘), 최종인 (세레나)

### 정영선 플로라

저는 20여년전 모태신앙이던 남편의 권유로 세례를 받게 되었고 짧은 신앙생활후 오랜시간 냉담자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몇해전 어머니를 하늘님 곁으로 떠나보내는 슬픔이 있었지만 저희에게 귀한 생명을 보내주시어 하늘님이 항상 저희와 함께 한다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힘과 용기를 내어라. 무서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마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주 너의 하늘님이 너와 함께 있어 주겠다." (여호 1:9)

### 여름일기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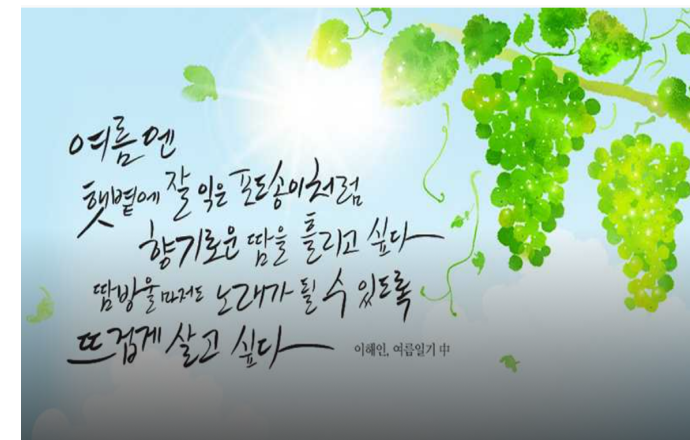
여름엔

햇볕에 춤추는 하얀 빨래처럼  
깨끗한 기쁨을 맛보고 싶다  
영혼의 속까지 태울 듯한 태양아래  
나를 빨아 넣고 싶다

여름엔 잘 익은 포도송이처럼  
향기로운 땀을 흘리고 싶다  
방울마저도 노래가 될 수 있도록  
뜨겁게 살고 싶다

여름엔

꼭 한번 바다에 가고 싶다  
바다에 가서  
오랜 세월 파도에 시달려온  
섬 이야기를 듣고 싶다  
침묵으로 엮드려 기도하는 그에게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오고 싶다



연중 제16주일

2022년 7월 17일

미사 시간 안내

평 일 (영어미사)  
화요일-7:00 PM  
수 ~금-9:00 AM  
주일(한국어/영어 미사)  
토(특전/영어)-4:00PM  
일요일(영어)-9:00AM  
(한국어)-11:30AM

사무실 안내

주소: 122 High Street  
South Bound Brook,  
NJ 08880

#Tel : 732-356-1037  
#Email: office@edisonkcc.org  
근무시간: 화-금요일  
(10:00AM~3:00PM)

에디슨한인천주교회

주임신부  
이남웅 스테파노

본당부제  
윤석로 이나시오

평협회장  
채희백 바오로



# 에디슨한인천주교회

OUR LADY OF MERCY PARISH



<마르타와 마리아의 집을 방문한 그리스도>  
베르메르 1655년, 스코틀랜드 국립미술관, 영국

### < 이번 주 전례안내 >

- # 제 1독서 창세기 18,1-10L
- # 화답송 시편 15(14),2-3,7,3L,4-4L,5(© 1가)  
◎ 주님, 당신의 천막에 누가 머물리이까?
- # 제2독서 사도 바오로의 콜로새서 1,24-28
- # 복음 환호송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하늘님 말씀을 간직하여 인내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행복하여라.
- # 복음 루카 10,38-42  
<마르타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 들었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하였다.>
- # 성가번호 입당 2 봉헌 217 성체 175 파견 402

**미사지향 (연미사)**

- 최복자(레지나) - 가족
- 소형덕(베드로) - 가족
- 오옥순(수산나) - 가족
- 이영훈(바오로) - 이정배(마크리나)
- 김진철(요한) - 가족
- 김경희(수산나) - 가족
- 오홍순(카타리나) - 가족
- 김명자(헬레나) - 가족
- 박병희 - 김 스텔라
- 이정만 - 가족
- 우제덕 - 안현정(소화테레사)
- 김정수(이사벨라) - 가족
- 장인석(미카엘) - 가족
- 이동현(요셉) - 가족

**미사지향 (생미사)**

- 유병기(베네딕도) - 이순재(마리아)
- 오경선(원선시오) - 이순재(마리아)
- 한상철(빈첸시오), 한종매(안나) - 김순옥(울리아)
- 염은미(클라라) - 가족
- 정영옥(요셉피나) - 유희자(베로니카)
- 강해성(야고보) - 가족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 주일 헌금 (미사 참여 148명).....\$1,531
- 교무금.....\$2,640
- 곽유리안나(7-12) 오용운(7) 하건철(7-8)
- 하연승(5-8) 추승호(5-6) 김인자(7-12)
- 박재영(7-8) 오용덕(7-8) 최영옥(7)
- 오경선(7-8) 이막동(7-12) 유근성(7-12)
- 김성일(7)
- 감사 헌금 .....\$200
- 이순재(\$200)

한컷 묵상



류상애 아녜스 수녀 살트르성바오로수녀회 대구관구

**환우들의 빠른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정영철(프란치스코) 하건철(안토니오)
- 오용덕(헨리코) 오경선(원선시오)
- 염은미(클라라)

**2차 헌금**

- 7월 17일 : 유틸리티

**미사 시작 10분전부터 삼종기도를 함께 바칩니다**

**예비자 교리반 모집**

• 2022년 7월부터 예비자 교리 교육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바랍니다.

**하계 기간 (7-8월) 사무실 업무시간 변경 안내**

- 업무시간 : 오전 8:30 - 오후 1:30 (화-목)
- 업무시간 외 용무는 사무장 개인 연락처(732-258-5998)로 연락바랍니다.

**먼로 구역 모임**

- 일시 및 장소 : 7월 17일 (주일) 오후 1시 30분, 김치하나

**반석회 7월 모임**

- 일시 및 장소 : 7월 23일(토) 오후 12시 30분, 성당 친교실

**한미 통합사목회의**

- 일시 및 장소 : 7월 27일(수) 오후 7시, 성당 친교실

**꼬미시움 주관 레지오 단원 일일 교육**

- 일시 및 장소 : 7월 31일(주일) 오후 2시-6시, 성당
- 강사: 미 동북부 레지오 교육 위원회 회장단
- 이튼타운 성당, 프린스턴 성당 레지오와 함께 교육이 있을 예정이오니 레지오 단원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2 Bishop's Annual Appeal**

• 7/1까지 약정금액은 \$43,502 (목표금액의 124.3%, 135 가정 참여)입니다.  
• 6월 22일 기준으로 2022년 Bishop's Annual Appeal \$35,000목표금액의 122.93% 를 달성하여 교구청으로부터 \$3,173.25을 리베이트 받았습니다.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선교지 청소년들에게 약기보내기 운동 2022 콘서트**

- 미국 살레시오회 주관으로 선교지에 약기를 직접 보내거나 약기 구입에 필요한 금액을 후원하는 행사입니다.
- 빛이 없는 어두운 곳에서 생활하는 선교지 청소년들에게 사랑의 빛을 밝혀주는 숭고한 애덕을 실천하고 주님의 은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일시: 2022년 8월 13일 오후 6시
- 장소: 마리안 슈라인 이태석 신부 Hall  
174 Filors Lane, Story Point, NY 10980
- 문의: 이상익 요한(201-341-4949)  
구본주 미카엘(917-248-5977)

**은혼식, 금혼식 축하 예식**

- 메타천 교구 체키오 주교님의 주례로 결혼 25주년, 50주년을 기념하는 혼인갱신식이 있습니다.
- 일시 : 2022년 10월 30일(주일) 오후 3시 30분
- 장소: St. Francis of Assisi메타천 주교좌 성당

**지난 7/10일 주보4면 소공동체 소식, 노스브런스릭 구역원 소개란에 임영자(안나) 자매님이 명단에서 누락이 되어 정정합니다.**

**제 1독서 창세기18,1-10L**

그 무렵 주님께서 마르레의 참나무들 곁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아브라함은 한창 더운 대낮에 천막 어귀에 앉아 있었다. 그가 눈을 들어 보니 자기 앞에 세 사람이 서 있었다. 그는 그들을 보자 천막 어귀에서 달려 나가 그들을 맞으면서 땅에 엎드려 말하였다. “나리, 제가 나리 눈에 든다면, 부디 이 종을 그냥 지나치시 마십시오.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시어 발을 씻으시고, 이 나무 아래에서 쉬십시오. 제가 빵도 조금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이 종의 곁을 지나게 되셨으니, 원기를 돋우신 다음에 길을 떠나십시오.” 그들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아브라함은 급히 천막으로 들어가 사라에게 말하였다. “빨리 고운 밀가루 세 스야를 가져다 반죽하여 빵을 구우시오.” 그러고서 아브라함이 소 떼가 있는 데로 달려가 살이 부드러롭고 좋은 송아지 한 마리를 끌어다가 하인에게 주니, 그가 그것을 서둘러 잡아 요리하였다. 아브라함은 엉긴 젓과 우유와 요리한 송아지 고기를 가져다 그들 앞에 차려 놓았다. 그들이 먹는 동안 그는 나무 아래에 서서 그들을 시종들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댁의 부인 사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물으니, 그가 “천막에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내년 이때에 내가 반드시 너에게 돌아올 터인데, 그때에는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제 2독서 사도 바오로의 콜로새서 . 1,24-28**

형제 여러분,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겪으며 기뻐합니다. 그리스도의 환난에서 모자란 부분을 내가 이렇게 그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당신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완수하라고 나에게 주신 직무에 따라, 나는 교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 말씀은 과거의 모든 시대와 세대에 감추어져 있던 신비입니다. 그런데 그 신비가 이제는 하느님의 성도들에게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하느님께서 다른 민족들 가운데에 나타난 이 신비가 얼마나 풍성하고 영광스러운지 성도들에게 알려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신비는 여러분 가운데에 계신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는 영광의 희망이십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으로 굳건히 서 있게 하려고, 우리는 지혜를 다하여 모든 사람을 타이르고 모든 사람을 가르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루카 복음 10,38-42**

그때에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그러자 마르타라는 여자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 들였다. 마르타에게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러나 마르타는 갖가지 시종드는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가가, “주님, 제 동생이 저 혼자 시종들게 내버려 두는데도 보고만 계십니까? 저를 도와라고 동생에게 일러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마르타에게 대답하셨다. “마르타야, 마르타야! 너는 많은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뜻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천주교 신자로서 유아세례는 꼭 해야 하는 건가요?**

종종 어떤 분들은 ‘아이가 나중에 스스로 종교를 선택할 수 있게 해주고 싶다’고 하시며, ‘종교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싶어 하십니다. 하지만, 이 문제의 주제를 교육으로 치환하여 놓고 보면 답은 좀 더 분명해집니다. 그 어떤 부모님도 아이가 교육을 받을지 말지 스스로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방관에 가까워질 테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아이를 신앙 없이 키우는 것을 ‘자유’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안에는 이미 ‘신앙은 중요하지 않다’는 부모의 가치관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물론 개인적인 결단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과 함께할 때 비로소 그 가능성은 현실로 개화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홀로 만들어나가는 노력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과 함께하면서 시작되고 자라나게 됩니다. 유아 세례는 바로 이러한 신앙의 공동체성 안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유아 세례 예식서도 이러한 의미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예식서는 어린이에게 직접 질문을 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교회에서 무엇을 청합니까?” 이런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현행 예식서(2018년 발행)는 부모에게 묻습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하느님의 교회에서 무엇을 청합니까?” 이 같은 질문은 유아 세례가 어린이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부모가 신앙으로 수행해야 하는 부모의 몫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의 맥락에 따라, 이번에 주신 질문에 대한 답을 교회법 조항 그대로 분명하게 전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부모는 아기들이 태어난 후 몇 주 내에 세례받도록 힘써야 할 의무가 있다.”(교회법 867조 1항)

출처: 가톨릭교리상식 무엇이든 물어보세요!(2021. 03. 14.)

